

경제



교보증권 박종서 광주지점장의 이번주 추천종목은 현대건설과 YBM시사닷컴이다. 현대건설은 정부의 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급확대정책의 수혜가 예상되고 내년부터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이 시작된다...

이코 있다. YBM시사닷컴은 콘텐츠 매출부문이 고성장중이고, 온라인 영어강의중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과목이 정부의 고용보험환급 대상 교육과정으로 지정된 점, 올해도 33.9%의 영업이익률이 예상되는 점을 추천사유로 들었다.

“대수보다 취업이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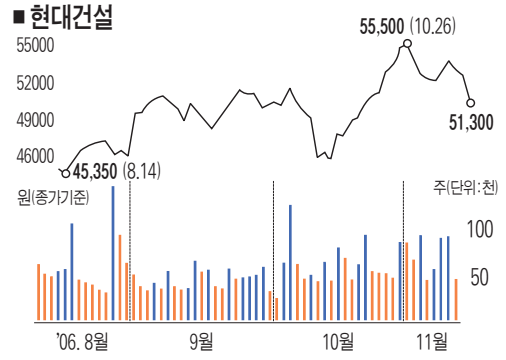
20~30대 직장인 1,566명 설문

20~30대 직장인 대다수는 대학 입학시험보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채용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20~30대 직장인 1천5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9%가 ‘대학 입학시험보다 취업이 더 어려웠다’고 답했다.

인수·합병 6개월 내 결정

콘텐츠 매출부문 고성장

■ 현대건설



■ YBM시사닷컴



한국을 대표하는 건설업체로 건축과 토목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수주잔고가 지난 6월말 현재 26조2천400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5년치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을만큼 해외수주 호조와 수익성 좋은 공사의 선별수주로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다.

회복에 나서고 있다. 더구나 행정복합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이 내년부터 본격화 되면 토목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현대건설로서 매출증대의 호기를 맞게된다. 하지만 향후 6개월내 주가 향방은 국내 인수·합병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이 종목의 매각과정에 달려있다.

온라인 교육 전문업체로 토익시험 대행주체로 유명하다. 지난 5월 토익시험 변경으로 시험 응시자가 감소하면서 2분기 실적이 부진했지만 3분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16억원과 3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5.8%와 14.4% 늘어나는 등 호전되고 있다.

적인 수입원 확보에 일조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MS 오피스 능력테스트인 ‘MOS’시험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우수한 콘텐츠의 질 및 다양한 매출경로를 바탕으로 한 수수료 수입 등 매출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 주 중 발표될 부동산 대책 실효 거들까

‘공급’ 해결없인 미봉책

정부가 이번 주 또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참여정부가 2003년 2월 출범한 이후 크고 작은 부동산정책들이 수없이 발표됐지만 주택시장과 대다수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의 대형 정책엔 셀 경우 이번 대책이 8번째가 된다.

지원을 위해 2조원보다 많은 2조7천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움직임을 상향조정, 녹지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부담 확대 등을 통해 공공택지의 분양가가 20~30% 인하되도록 유도하고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에 대해서도 상한제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대형 대책만 8번째

주택대출 규제 투기지역에 집중

서민 전세 지원 2조7천억 확대

정책이 간간히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측면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종전보다 강화해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값을 부추기지 않도록 규제하되 투기지역에 집중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한 잘못된 원인 진단과 수요 억제에 지나치게 치중했다는 점을 제시하고 실수요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DTI 적용대상을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서 3억원 초과로 확대하거나 DTI 비율을 현재의 40%에서 3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DTI를 비투기지역에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REIF서비스 고종완 대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저급리로 인한 과잉유통성과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올랐는데 규제와 세금으로 일관한 대책만 내놓아 원인과 처방의 미스매치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자금

자원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패딩으로 월동준비. 추운 날씨를 보인 1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2층 여성매장에서는 패딩점퍼가 고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이 점퍼는 오리털이 들어 있어 옷을 많이 꺼입지 않아도 따뜻한 장점이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참여정부 3년 부동산 양도차익 64조”

이한구 의원 주장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잇단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양도차익이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2일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국제청과 기획예산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조세당국에 신고된 부동산 양도차익은 모두 64조 3천13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기간 정부예산 일반회계 규모인 373조4천873억원의 17.2%에 달하는 것으로, 특히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닌 1가구1주택 소유자의 양도차익은 조세당국에 신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됐다. 연도별로는 ‘국민의 정부’ 말기였던 지난 2002년 14조6천365억원이었던 것이 2003년 17조6천835억원, 2004년 20조5천305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26조 998억원으로 3년만에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같이 양도차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같은기간 개별 공시지가가 1천18조원이거나 오히려 아파트 시가총액이 390조원이나 증가하는 등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규제 우선의 반시장적 정책과 반기업정서에 따른 부동산가격의 부동산시장 과다 유입 등으로 부동산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퇴물’ 석탄 부활

고유가 시대 ‘대체에너지’ 떠올라

한물간 산업혁명시대의 연료로 여겨졌던 석탄이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석유를 대체할 가장 현실적 에너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12일 ‘석탄, 포스트(post) 오일로 급부상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석유 의존도의 불안한 에너지 구조를 바꾸기 위해 석탄을 장기적 대안으로 인식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무게를 기준으로 석탄값은 현재 배럴당 60달러를 웃도는 유가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액체나 가스로의 변환 과정을 거친다 해도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석유와 천연가스가 각각 41년, 67년 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석탄의 추정 채굴가능성은 164년에 이른다. 액화 및 가스화 기술발달로 석탄의 최대 약점이었던 공해유발과 용도제한 등의 문제도 빠르게 극복되고 있다. ‘석탄 가스화 복합발전’ (IGCC) 기술 덕분에 석탄으로 단위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은 기존 직접 연소방식에 비해 22~25%나 줄었고,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잡아 공업용 가스로 재활용하는 기술까지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

건강보험 수준으로 일원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된다. 또 국민건강보험에 급여 항목 자체가 없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병원이 달라는 대로 컸던 기준의 이른바 ‘관행수’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건설교통부가 진료수를 새로 고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금이 크게 줄어들어 손보사들의 손익구조가 개선되고 소비자들이 내는 자동차보험료는 인하되는 반면 병원들의 수익성은 나빠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일 규제개혁 차관회의를 열어 진료수가 체계가 서로 달라 보험사가 유발의 온상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12일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Table with 3 columns: 로도복권 (제206회), 팝콘복권 (제29회), and 당첨번호. It lists winning numbers and prize amounts for various lottery types.

Table titled '함께 일합시다' (Let's work together) listing various job openings with columns for company name, position, qualifications, and contact information.